

프랑스 에너지政策의 方向

프랑스 社會黨의 H·부샤드 國民議會議員을 중심으로 한 情報作業그룹은 작년 12월 프랑스의 앞으로의 에너지 政策에 관한 報告書를 國民議會에 제출했다. 다음에 原子力資料 7月號에 게재된 同보고서의 序論과 結論部分을 소개한다.

이보고서는 모두 16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연휴 및 에너지의 절약과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프랑스 원자력 개발계획에 대한 반성사항에 대해, 제3장에서는 원자력정책의 공개 및 의지결정절차와 규제체제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샤드의원은 제23회 일본 원산연차대회에서의 강연에서 동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번 에 처음으로 환경문제에서 원자력비판과까지 폭넓게 의견을 청취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序 論

국민의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설정에 관한 이번 논의는 1981년의 논의와 같은 상황하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정세는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시장도 그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매도인에 의해 지배되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행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는 에너지 및 1차재료가 결핍된다는 로마·클럽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카운터·석유위기”에 계

속되는 현재의 상황은 그런 정량적인 불안을 거의 일소했다.

1981년 프랑스에서 정치적 변화가 다른 곳에서 세계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에너지정책에의 굴절을 초래했다. 즉, 석탄의 일시적인 부활, 철저한 에너지 절약정책, 원자력발전의 일부분이 실제로 중단되거나 감속된 점 등이다.

오늘날 프랑스는 이전의 선택궤도를 에너지문제에 관한 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계속 찾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새롭게 큰 방향의 결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논의는 1981년의 논의 때에 이미 큰 주위가 환기된 2개의 테마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에너지관리라는 정책의 새로운 부활 및 핵연료사이클을 폐쇄하는 것이다.

상황은 또 다른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다르다

에너지문제가 매우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며 1973년의 OPEC의 석유가격 인상결정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그 국제적 확산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체르노빌사고는 원자력을 그 당해국가에만 관련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시켰다.

